

웰빙과 사회발전 측정 개관

(’12년 02. 통계개발원 이희길)

가. 서론

나. 사회발전과 웰빙 측정 패러다임의 변화

- 1) GDP와 그 한계
- 2) 새로운 대안들 : “Beyond GDP”

다. 사회발전과 웰빙 측정 접근시각

- 1) 객관 VS. 주관적 접근법
- 2) 개인 VS. 전체사회의 삶의 질

라. 최근의 사회발전과 웰빙 측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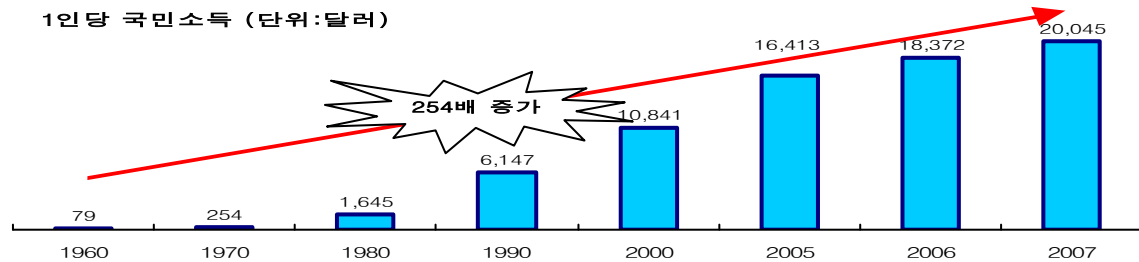
- 1) 국제기구 : OECD
- 2) 단위국가 사례 : 일본, 캐나다, 부탄
- 3) 국내사례

웰빙 및 사회발전 측정

가. 서론

□ 사회발전 내지는 개인의 삶의 수준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국내총생산 (GDP) 및 국민총소득(GNI) 등이 활용

○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40여 년 간 250배 이상 증가하여 최근에는 2만 달러를 상회



□ 그러나 사회안전, 교육 등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수준 혹은 삶에 대한 만족도는 소득증가를 뒤따르지 못하는 모습

○ 우리나라는 행복 관련 국내외 조사에서 소득대비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지수는 OECD 평균 0.69를 크게 하회하는 0.45로 전체 조사대상국 26개국 중 23위를 기록 (2006 OECD 사회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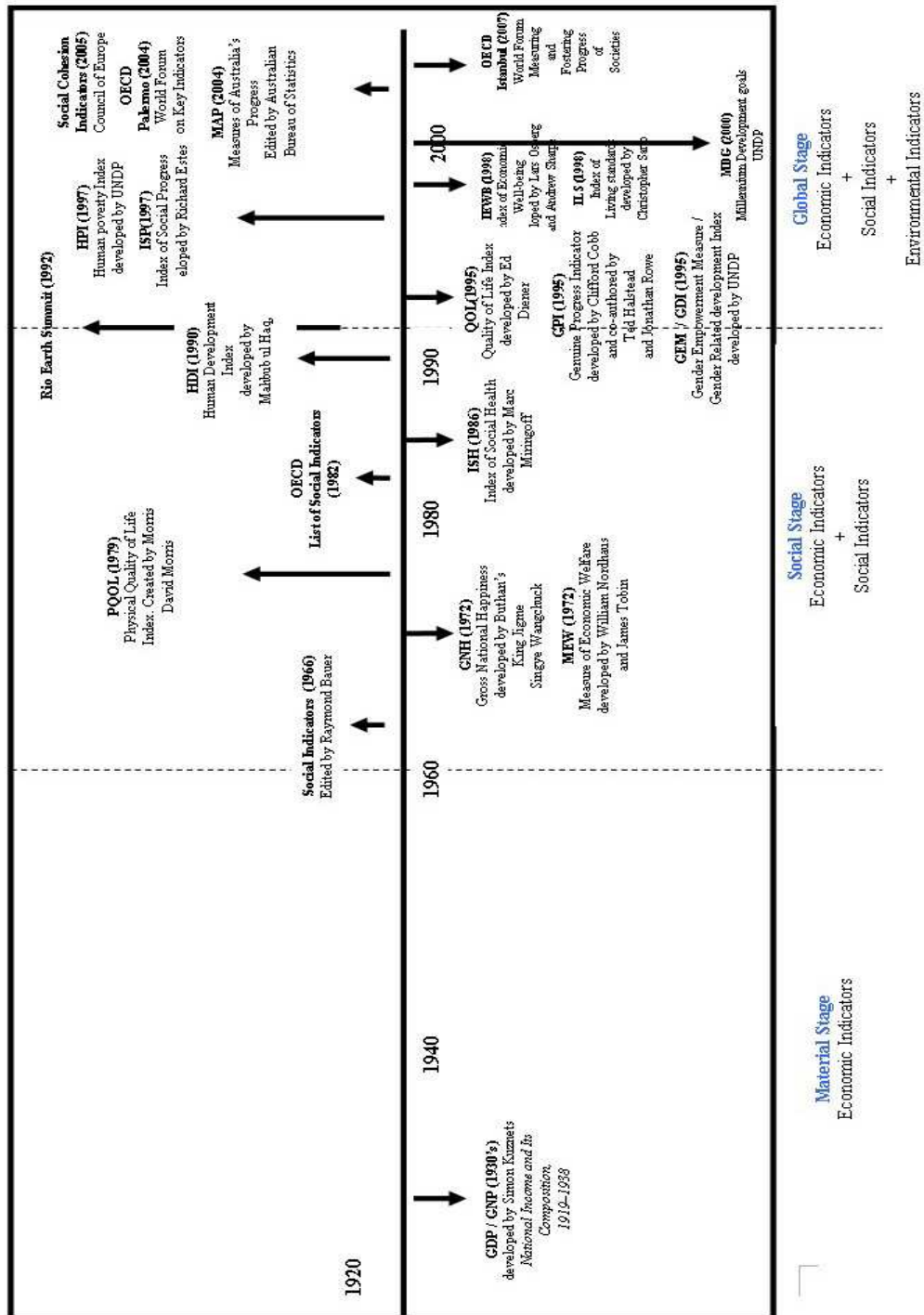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발한 종합복지지수(KIHASA-Chosun Welfare Index 2011 ; KCWI 2011)에서, 한국의 종합점수는 0.499점으로 30개국 중 26위 수준으로 나타남. 특히 경제 활력도와 복지재정의 지속측면에서는 양호하였으나, 향후 복지수요 충족과 현재 국민행복은 낮게 나타남

종합 순위	국가	부분별 순위				
		경제 활력	재정	복지수요	복지충족	국민행복
1	노르웨이	3	7	3	4	1
5	스웨덴	16	22	9	3	4
11	영국	10	16	14	18	6
23	일본	13	25	20	17	23
24	미국	8	11	27	27	14
26	한국	12	4	17	28	29
29	멕시코	29	1	26	30	17
30	터키	30	2	30	29	26

⇒ 소득관련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포괄하는 지표에 대한 요구 증대

나. 사회발전과 웰빙 측정 패러다임의 변화

□ 사회발전과 웰빙의 측정과 관련된 패러다임은 크게 세 단계로 변화



[그림 1] 사회발전관련 지표의 변천사 (출처, OECD Statistics Directorate, 2008)

1) GDP와 그 한계

□ GDP란 시장경제에서 소득과 지출의 순환적 흐름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마치 전력계와 유사한 기능

- GDP는 일정 기간동안 화폐가치로 생산된 재화나 교환된 서비스의 최종 가치를 합산한 것으로서, 한 국가의 모든 개인들의 소비지출, 정부의 지출, 순 수출, 순 자산 형성 등을 모두 합산한 것
- GDP는 경제활동을 재는 척도로서 그리고 사회경제적 웰빙의 척도로도 활용
 - GDP는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로, 그리고 1인당 GDP는 다양한 국가의 삶의 질을 비교하는 척도로 광범위하게 활용

□ GDP 한계

- 1) GDP는 평균적으로 소득이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보여주지만 그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또한 얼마나 빈부간 격차가 있는지를 반영하지 못함
 - 예) 미국은 수십년간 GDP는 증가했지만, 가구소득의 중위값(median household income)은 줄어들었고, 소득격차도 지속적으로 증가(Stiglitz, 2008)
- 2) 전체 GDP의 30-4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는 청소, 요리, 육아 등의 비임금 노동은 계산에서 고려치 않음(화폐로 교환되는 생산이나 서비스 활동만을 포함)
- 3) 양적인 성장은 보여주나, 그 성장이 얼마나 질적인 것인지를 구별 못함
 - 예) 기름유출사고(방제비용 지출로 GDP 증가 그러나 환경파괴)
 - 예) 이혼률의 증가는 위자료와 변호사 수입료의 증대로 GDP 성장(이혼의 부정적 효과 미반영)

○ 이스터린 패러독스(Easterlin Paradox)

- Easterlin(1974) 한 국가 내에서는 많은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보다 행복
- 국가간 비교를 보면, 국가의 소득수준 차이에 비해 행복도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주장(Easterlin, 1974)
- 미국 내에서 보면 1946년에서 1970년 사이에 1인당 소득은 증가했지만, 행복도는 같은 시기에 오히려 감소

- 넷째, GDP의 결정적인 결함은 자연자원이나 인적자원, 혹은 사회자본 등의 크기를 반영하고, 성장의 결과물인 자원의 고갈을 간과
 - 예) 범죄의 증가, 전쟁, 오염, 온실가스 배출, 자연재난의 증가 등

2) 새로운 대안들 : “Beyond GDP”

□ GDP 수정지표

○ GPI(Genuine Progress Indicator)

- GPI는 GDP 대신에 환경경제학이나 복지경제학의 척도로 그 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GPI는 비경제적인 성장과 가치있는 성장을 구분하여 믿을만한 발전을 측정을 제공하고자 함
- GPI는 첫째, GPI는 GDP의 대체물이 아니라, 보완적인 것임. 전통적인 경제학은 경제를 닫힌 체계로 이해하나, GPI는 사회와 환경의 맥락 안에 놓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형태의 형평, 즉 세대 간, 세대 내, 지리적 형평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 둘째, GPI는 기존의 삶의 질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삶의 질 지표들이 매우 방대하고 다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 이유는 경제지표들을 빠뜨렸기 때문.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 보태서 사회적, 환경적 측면까지 포함한 통합계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 셋째, GPI는 경제적인 계정으로 추계되는 자본의 개념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여 화폐가치로 계산하자고 주장

- **환경자본** : 생산과정에 소요되며 소비욕구를 충족시키는 천연자원과 즐거움과 생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요소들
- **경제자본** : 기계, 장비, 구조물 등과 같은 생산에 필요한 도구나 금융자산 등
- **사회자본** : 집단 내, 그리고 집단 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공유하는 규범, 가치, 이해 등에 기반한 네트워크
- **인적자본** : 개인에 체화되어 있어서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웰빙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능력 등
- **문화자본** : 특정한 집단의 결속 유지에 도움이 되는, 함께 묶어주는 가치, 역사, 전통 등

- 넷째, 개인 소득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만큼 불평등이나 범죄, 환경오염, 여기손실 등이 발생한다면 그만큼을 제외한 값을 계산. 지난 60여년간 미국의 일인당 GDP는 1만불에서 4만불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GPI는 1만불에서 2만불 수준으로 경미하게 증가하였고, 그 값도 지난 30여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GDP 배제지표

○ 행복한 지구 지수(HPI : Happy Planet Index)

- 작성기관: 영국 신경경제학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 영국의 민간연구기관)
- HPI는 삶에 대한 만족도, 기대수명, 생태영향력(ecological footprint)으로 구성

$$\text{HPI} = (\text{삶에 대한 만족도} \times \text{기대수명}) / \text{생태영향력}$$

○ Ecological Footprint(EF)

- EF는 개인이나, 도시, 국가 등이 생태계가 재생해낼 수 있는 속도에 견주어 얼마나 빠르게 가용한 환경자산을 소진시키는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사용¹⁾
- EF(생태영향력)은 현재 인구가 현재상태의 소비, 기술발전, 자원효율성을 유지할 때 필요한 전지구적인 평균 토지의 면적을 의미
- 생태영향력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작물과 수목, 바이오연료 등을 재배하기 위한 토지, 어업을 위한 해양자원,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분해시킬만한 식물자원을 위한 토지 등

□ 종합지표 : UNDP HDI(Human Development Index)

- HDI는 경제성장과 인간발전이 실질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
- 목표는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되, 필요한 교육을 받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며, 건강수명을 유지하고, 정치적 자유와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표로 출발
- 최종적으로는 기대수명, 문지독해율, 그리고 구매력을 고려해 조정한 GDP를 그 척도로 채용

$$\text{HDI} = 1/3(\text{life expectancy index}) + 1/3(\text{educational index}) + 1/3(\text{GDP index})$$

* 교육지수 : 성인문지해독율(2/3)+교육기회(1/3)로 계산

1) <http://www.footprintnetwork.org/en/index.php/GFN/>

나. 사회발전과 웰빙 측정 접근시각

- ‘삶의 질’ 개념은 자연히 ‘좋은 삶(good life)’ 혹은 ‘좋은 사회(good society)’에 대한 다양한 이론의 발전을 가져옴
- 삶의 질에 대한 조작화 노력은 크게 두 가지 대별되는 방향으로 진행. 스칸디나비아의 접근법은 자원 및 객관적 생활조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미국의 접근법은 조건과 과정의 최종 결과물로서 개인의 주관적인 웰빙을 강조
 - 객관적 사회지표는 개인의 평가와 독립적인 사회적 사실을 제시하는 통계이고, 주관적 사회지표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만족도에 대한 측정값
- 기존의 ‘삶의 질’ 접근법에서는 암묵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과 그 조건에 주목하여, 전체 사회차원의 중요하게 고려치 않은 문제가 있었음
 - ‘삶의 질’ 접근은 기존의 GDP로 대표되는 경제중심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
 - 그러나, 형평, 공평, 자유, 사회적 유대와 같은 전체사회적 환경은 개인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

1) 객관적 VS. 주관적 접근법

□ Sen의 “역량(capabilities)” 접근

- 섀(Sen, 1993)은 ‘삶의 질’은 가치 있는 기능(functioning)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봄.
 - 기능적 역량 (functional capabilities)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는 충분한 수명을 누리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기능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substantive freedom)는 충분한 수명을 누리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효용(utility)이나 자원 접근권(소득, 자산 등)과는 구별
 - 기능은 자신이 꾸려가고 삶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개인적 상황의 부분들을 표상 예) 가난은 소득의 부족이 아닌 역량을 축적할 기회의 박탈로 이해
 - 어떤 기능은 매우 기초적인 것으로 건강, 좋은 영양 상태와 같은 것이고, 다른 것은 성취, 자존감, 사회적 통합 등과 같이 보다 복잡함
 - 이 시각은 관념은 인간발달 접근(Human Development Approach)에 의해 구체화

□ 주관적 접근법

- 미국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연구는 공리주의 철학에 기초한 것으로, “사람들이 상황을 실재하는 것으로 규정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실재한다”는 금언으로 잘 알려짐
- 이 전통에서는 삶의 질을 ‘주관적 웰빙’으로 규정하며, 개인에 의해 주관적으로 인식되고, 경험된 것으로 간주됨
-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개인 시민의 주관적 웰빙으로 규정되고, 주관적 웰빙의 관점에서 보통 사람 자신이 가장 적합한 전문가임
- 가장 중요한 주관적 웰빙의 지표는 만족감과 행복감의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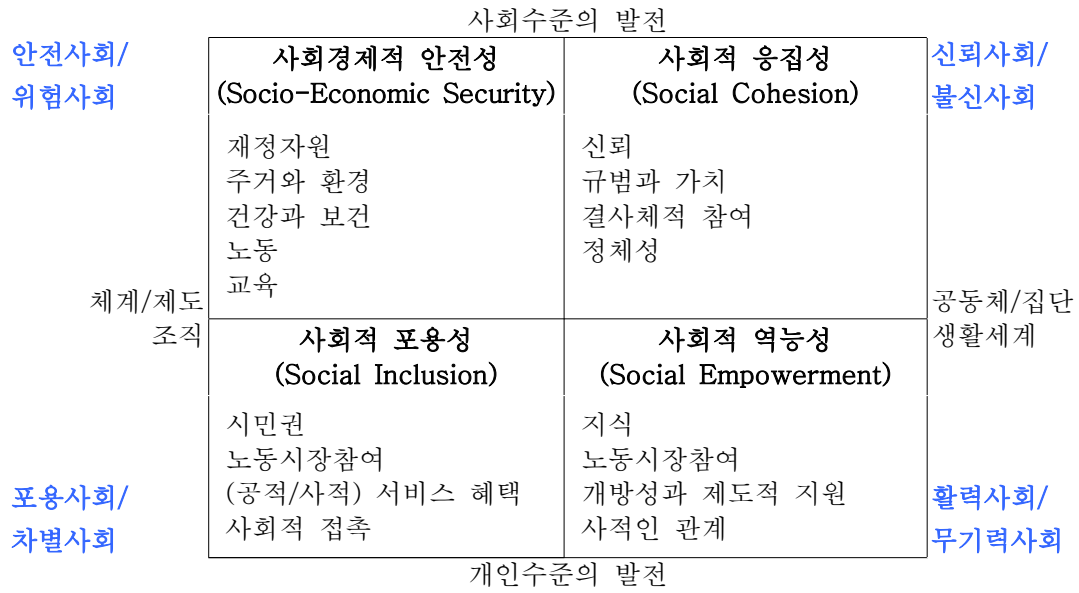
〈표〉 객관적 접근과 주관적 접근 비교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최종목적	객관적인 삶의 수준 향상	국민의 느끼는 만족도 제고
평가주체	전문가	일반국민
장점	정책적 활용 용이 시계열 비교 용이	국민의 다양한 견해 반영 국민의 실제 체감 측정
단점	심리적 측면이 간과 측정의 신뢰성 문제	열망(기대)의 수준에 영향

2) 개인 VS. 전체사회의 삶의 질

□ 전체사회의 삶의 질 : 사회의 질

- 특히 199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사회의 질’에 대한 연구 활성화로 ‘사회통합’, ‘지속가능성’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개념들이 새로운 관심영역으로 대두됨
-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개인의 잠재력과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생적 관계 맺기가 가능할 수 있게 공동체의 사회, 경제,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곧 그 '사회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
- '사회의 질'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토대가 되는 모두 네 가지의 구성요소들 (constitutional factors)로 이루어짐
 - (socio-economic security)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적, 환경적 자원 등에 접근가능한가
 - (social cohesion)사회적 관계가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 (social inclusion) 개인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제도와 사회적 관계에 접근가능한가
 - (social empowerment)개인의 역량과 능력발휘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복돋워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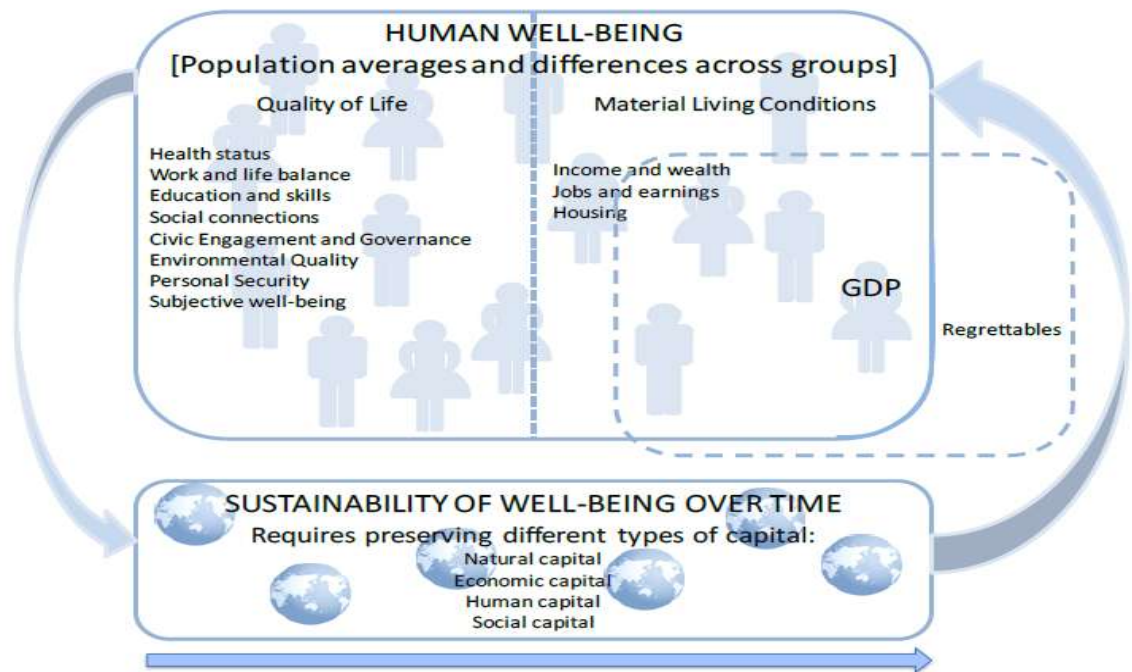
다. 최근의 사회발전과 웰빙 측정사례

1) 국제기구 사례 : OECD 글로벌 프로젝트(Measuring Progress)

□ 스타글리츠 보고서의 분석틀(framework)을 차용하여 주제별 차트를 구성함

- 각 장은 OECD와 다른 자료를 활용한 객관 및 주관지표로 구성된 핵심지표(headline indicators)를 포함함
- 초점은 국민들과 가구의 현 조건에 두어지며, 동시에 ‘국가의 발전 경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도 제시될 것임

[OECD 웰빙 및 발전 측정 framework]



□ 핵심지표 구성

[표] OECD 핵심지표

물질적 조건		삶의 질	
소득과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순조정 가처분소득 · 가구의 재정적 순자산 	일과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시간 근로 노동자 · 필수교육아동을 둔 여성고용률 · 여가/개인관리 사용시간
직업과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률 · 장기실업률 	건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시 기대수명 · 자기보고 건강/일상생활 활동

	· 근로시간당 평균 임금		장애
		교육과 기술	· 교육성취 · 학생의 인지기술
		사회관계망	· 타인과의 접촉 · 사회적관계망의 지원 or 일반화된 타인 신뢰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 정부 투명성 · 투표율/제도 신뢰
주거	· 기준이상 주거 거주 · 주거만족도	환경의 질	· 대기 오염 · 지역 환경의 질 만족도
		개인 안전	· 보고된 살인 · 불안감/자기보고 범죄피해
		주관적 웰빙	· 삶에 대한 만족도 · 긍정·부정적 경험의 균형

□ 결과활용 : 결과물은 “How's Life?”라는 제목으로 발간(2011)

- 웰빙이 좋은 나라 : 캐나다,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 웰빙이 나쁜 나라 : 터키, 멕시코, 칠레,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헝가리
- 한국 상황 : (나쁜점 20%) 자기보고 건강평가, 사회관계망 지원
(좋은점 20%) 장기실업률, 기초주거환경 구비, 여가시간, 입법자문

2) 단위국가 사례 : 일본, 캐나다, 부탄

□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일본 경제기획청, 1999)

- “1980년 후반에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없다”는 지적으로 인해 지수를 작성
- PLI(신국민생활지표, People's Life Indicators)는 일본 국민의 생활실태를 다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생활 통계 체계. 비화폐적 지표를 중심으로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제안하여 작성(일본 경제기획청, 1999)
- 개인 생활의 풍부함과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의식주에 더하여 개인의 여가와 자유시간 활용 측면을 파악하고자 함
- 주거, 소비, 근로, 양육, 보건, 여가, 교육, 교제/관계의 8개 활동영역을 설정

[표] 신국민생활지표 영역별 지표구성

영역	지표구성 내용
주거	주거, 주거환경, 근린 사회의 치안 등의 상황
소비지출	수입, 지출, 자산, 소비생활 등의 상황
근로	임금, 노동시간, 취업기회, 노동환경 등의 상황
양육	(자녀를 위한) 육아/교육 지출, 교육시설, 진학률 등의 상황
보건의료	의료, 보건, 복지서비스 등의 상황
여가	휴가, 여가시설, 여가 지출 등의 상황
교육	(성인을 위한)대학, 평생학습 시설, 문화시설, 학습시간 등의 상황
교제/관계	혼인, 지역교류, 사회활동 등의 상황

자료: 일본 경제기획청, 1999, 신국민생활지표.

- PLI는 1999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며, 그 이유는 지자체의 반발이 있었는데 지표선정, 가중치 부여 등에 대한 논란이 존재했기 때문

□ 캐나다의 웰빙 지수(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

- 캐나다 웰빙지수(CIW)는 ‘캐나다인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진보의 의미’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한 범국가적 지표개발 프로젝트
 - CIW는 GDP, GNP와 같은 기존 지표들이 캐나다인들의 삶의 질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 1999년부터 Atkinson Charitable Foundation이 주축이 되어 정부기관, 캐나다 지도자, 전문가, 대중 등 각계의 협력을 통해 개발
- CIW는 8개의 범주 내에 64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가치를 담고 있는 복합적인 지표들을 통해 하나의 수치를 산출
 - 종합지수처럼 수치의 상승과 하락 등을 통해 캐나다인들이 향유하고 있는 현재의 웰빙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음
 - CIW는 캐나다인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측정하고, 문제점에 대한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이를 예방·개선하는 유용한 공공정책수단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

〈표〉 캐나다 웰빙 지수의 영역 및 측정 내용

영역	측정내용
생활수준 Living Standard	소득과 부의 분배, 빈곤, 소득변화, 경제적 안정, 직업안정성
시간사용 Time Allocation	시간 사용과 통제 정도, 시간활용이 웰빙에 미치는 영향
건강 Healthy Populations	신체적 육체적 건강, 기대수명, 의료서비스의 접근가능성과 질 등의 환경
환경 Environment	자연환경의 보전, 자연자원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교육 Education	교육수준, 다양한 사회적 배경에서의 능력, 발전가능성
공동체 지속 Community Vitality	이웃과의 관계와 활동, 소속감, 자원봉사 조직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정치와 공공영역에서 시민참여, 정부의 투명성/효율성, 공정성, 공평성 및 접근성, 세계시민으로써의 행동 여부
문화와 여가 Arts, Culture & Recreation	문화활동, 예술활동(행위, 시간, 영상 예술), 여가 활동

출처: Institute of Wellbeing, 2009, How are Canadians Really doing?, The First Report of The Institute of wellbeing(www.ciw.ca)

□ 부탄의 국민총행복(GNH)

- 부탄에서는 사회발전을 측정하는데 있어 행복이 기준이 되는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 개념을 제시하고, 2008년 GNH가 국가지표로 채택
- GNH의 핵심개념 : 좋은 발전이란 한 사회에 행복과 웰빙을 가져다주는 것(1972년, 부탄 4대 국왕 지그메 싱예 왕추크)

○ GNH 지수 작성 방법

- 지수의 작성과정은 각 영역별 충족여부로 집계되며, 각 지표별로 정해진 충족기준선 (sufficiency cutoff)에 따라서 기준선이 미치지 못하는 정도를 측정. 즉 행복한 사람이란 9개의 영역 모두에서 충족기준선 이상을 성취한 사람을 의미
- 충족기준선으로부터의 제공거리 값을 평균하여 국민총행복에서 벗어난 정도를 측정

GNH = 1 - 기준선으로부터의 평균 제공 거리*

* 제공거리 = {(충족기준선-실제달성도)/충족기준선}2

〈표〉 GNH의 영역별 세부내용

영역	세부내용	주요지표
심리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과 주관적 웰빙을 의미	스트레스 지표, 영성지표, 감정균형지표
시간활용	일하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파악	총 근로시간 지표, 수면시간 지표
지역사회 생명력	지역사회 및 개인 간의 상호관계 파악	가족활력지표, 안전지표, 상호호혜지표 신뢰지표, 사회후원 지표, 사회화 지표, 친족 친밀도 지표
문화	문화 전통의 다양성과 특이성에 중점	방언사용 지표, 기초 인식 지표, 가치전달 지표, 장인 기술 지표, 전통스포츠 지표, 지역사회 축제 지표
보건	국민의 건강상태와 결정요인, 의료시스템	건강상태, 건강지식 지표, 보건장벽 지표
교육	교육성과 및 교육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웰 빙 측면의 영향력과 효과 평가	교육달성도 지표, 지역 언어 지표, 민속 및 역사적 문헌 해독 지표
생태계	국내의 수요와 공급이 부탄의 생태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	생태환경 악화지표, 생태환경 지식지표, 조림지표
생활수준	사람들의 기본적인 경제 상태 평가	소득지표, 주택지표, 식량 안보 지표, 곤궁 지표
좋은 거버넌스	정부의 기능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 평가	정부성과 지표, 제도에 대한 신뢰 지표

자료: 통계청, 2009, 「OECD 세계포럼의 이해 - 제 2권 제3차 OECD 세계포럼 프로그램」, pp. 50.

3) 국내사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행복지수(2009년)

- 캐나다의 복지지수(CIW ; Canadian Index of Well-being)를 기초로해 개발된 지표로서, 화폐지표와 비화폐지표로 구분해 산출

범 주	최종지표	범 주	최종지표
경제적자원 연관요인 (화폐지표)	① NNI	사회적 요인 - 건강 (비화폐지표)	⑭ 출생시 기대수명
	② 가구가처분소득(중위)		⑮ 건강수명
	③ 여가시간		⑯ 영아사망률
	④ equally-distributed income		⑰ 잠재적 수명 손실
사회적 요인 - 자립 (비화폐지표)	⑤ 고용율	사회적 요인 - 사회적 연대 (비화폐지표)	⑱ 지역사회활동 참여
	⑥ 미취업가구원의 비율		⑲ 자살률
	⑦ 평균 교육년수		⑳ 감옥수감자 비율
	⑧ 평균 학업성취도		㉑ 범죄 피해율
사회적 요인 - 형평성 (비화폐지표)	⑨ 지니계수	환경요인 (비화폐지표)	㉒ 1인당 CO2 배출량
	⑩ 상대 빈곤율		㉓ population connected to public water
	⑪ 아동 빈곤율		
	⑫ 노인빈곤율		
	⑬ 성별 임금격차		

- 동 연구에서 한국은 종합점수 0.475점으로 30개국 중 22위 차지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스위스	0.747	20	미국	0.588
2	룩셈부르크	0.745	22	그리스	0.556
11	영국	0.666	25	한국	0.475
13	아일랜드	0.646	29	헝가리	0.404
18	일본	0.617	30	터키	0.310

□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의 경제사회 발전지표(2009년)

- 기본체계는 국가의 발전 정도와 지속가능성은 경제, 사회, 환경 등 세 가지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이들을 대표하는 영역으로 50개 세부지표를 활용
- '07년 종합지수 순위는 룩셈부르크가 1위, 스위스가 2위, 스웨덴이 3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은 '90년 20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07년에 14위로 개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 연구(2011)

- 지표의 구성 및 자료원 : 30개 OECD 회원국의 복지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하기 위해 복지지수로 개발한 KIHASA-Chosun Welfare Index 2011(KCWI 2011) 사용
- 세부지표 (5개분야 27개)

분야(비중)	세 부 지 표
경제활력지표(20.5%)	고용률, 실질경제성장률, 생산성 증가율, 물가상승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재정지속지표(18.8%)	국가부채비율, 재정적자율, 조세 부담률, 사회보험부담률
복지수요지표(18.2%)	노인인구비율, 지니계수, 빈곤율, 실업률, 장애인 비율, 산업재해발생률
복지충족지표(26.6%)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육지원, 장애급여, 국가 투명도, 공공사회복지지출
국민행복지표(15.9%)	자살률과 출산율, 평균수명, 주관적 행복도, 여가 시간

※ 자료 : 국가간 비교를 위해 'OECD Factbook', 'OECD Health Data' 등 자료원으로 이용

- 종합복지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로서 0.734점이며, 다음으로 룩셈부르크(0.705), 네덜란드(0.675), 덴마크(0.674) 등의 순으로 높은 복지수준으로 나타남
 - 주로 북유럽 국가들의 순위가 높은 반면, 동구권 국가들과 미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한국의 종합점수는 0.499점으로 30개국 중 26위 수준으로 나타남. 특히 경제적인 활

력도와 복지재정의 지속측면에서는 양호하였으나, 향후 복지수요 충족과 현재 국민행 복지표는 낮게 나타남

※ 한국의 세부지표별 순위, ()은 1위국가와 지수

고용률	63.8%, 22위 (84.2%, 아일랜드)	경제성장률	2.2%, 6위 (6.5%, 룩셈부르크)	생산성 증가율	4.2%, 1위	물가상승률	4.7%, 25위 (1.4%, 일본)
1인당GDP	27천\$, 22위 (84천\$, 룩셈)	국가부채 비율	26.8%, 6위 (14.3%, 오스트리아)	재정적자율	3.3%, 6위 (18.8%, 노르웨이)	조세부담율	20.7%, 8위 (17.2, 일본)
사회보험 부담률	5.9%, 10위 (0%, 오스트리아)	노인인구 비율	10.3%, 10위 (5.6%, 멕시코)	지니계수	0.312, 17위 (0.232, 덴마크)	빈곤율	14.6%, 24위 (5.2%, 덴마크)
실업률	3.3%, 4위 (2.6%, 노르웨이)	장애인비율	6.0%, 2위 (5.1%, 일본)	산재발생률	19.2명, 29위 (0.7명, 영국)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42.1%, 15위 (95.7%, 그리스)
건강보장률	64.5%, 27위 (93.4%, 네덜란드)	고용보장률	49%, 22위 (85%, 룩셈)	아동 및 보육지원률	70.8%, 15위 (96%, 벨기에)	장애급여 보장률	1.57%, 29위 (11.59%, 헝가리)
국가투명도	5.4점, 22위 (9.3점, 덴마크)	공공사회 복지지출	7.5%, 29위 (28.4%, 프랑스)	자살률 (10만명당)	21.5명, 30위 (2.5명, 그리스)	출산율	1.19명, 30위 (2.18명, 뉴질랜드)
평균수명	79.8세, 19위 (82.8세, 일본)	주관행복도 10점 만점	5.7점, 25위 (8.0점, 덴마크)	여가시간 (연간)	6,444시간, 30위 (7,470시간, 노르웨이)		

□ “한국사회의 질(social quality)의 변화와 전망”(이재열, 서울대학교 출판부)

○ 외환위기이후 10년간 한국사회의 질 변화 결과요약

사회수준의 발전		공동체/집단 생활세계
체계/제도 조직	<div> <p>의료, 방재, 교육의 확대 (사회적 안전)</p> <p>경제적 위험과 범죄의 증가 (경제-범죄 위험)</p> </div>	
	<div> <p>개방성의 미약한 증가 (문화적 개방)</p> <p>사회자본의 급격한 감소 (총체적 불신)</p> </div>	
	<div> <p>젠더 포용성의 증가 (여성 포용사회)</p> <p>계층간 포용성의 감소 (계층별 배제)</p> </div>	
	<div> <p>일상적 역능성의 증가 (일상적 활력)</p> <p>구조적 역능성의 감소 (거시적 무기력)</p> </div>	
개인수준의 발전		

		국제기준대비	외환위기에 이후증감	방향성	종합적 경향성
1. 사회경제적 안전성					
1.1 빈곤에서의 안전					의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위험에 노출된 인구는 증가함. ● 고용안정성은 개선되었으나, 작업장 악화되었음은 우려됨 ● 주택보급률은 증가했으나 가격은 급격히 상승함 ● 빈곤층에 따른 수요를 복지정책이 따라가지 못함 ● 의료와 교육의 개선
절대빈곤율	-	증가후 감소	-		
복지재정	하	증가후 감소	-		
1.2. 고용 및 산업안전					
비정규직 비율	중	증가	-		
근로시간	하	감소	+		
사고성재해만인율	하	감소	+		
1.3. 주거환경과 안전성					
주택보급률	상	증가	+		
주택가격	하	증가	-		
범죄	상	증가	-		
의료서비스	하	증가	+		
교육수준	상	증가	+		
2. 사회적 응집성					
2.1. 일반화된 신뢰	하	감소	-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규범의 상실 ●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이 최악의 상태를 벗어남. ● 일반적 신뢰 감소 ● 투명성 개선 안됨 ● 기관과 제도에 대한 신뢰 감소 ● 공동체적 가치와 소속감 악화
2.2. 부패인식지수	하	불변	0		
2.3. 제도와 기관에 대한 신뢰	중	감소	-		
2.4. 다원주의와 관용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	하	증가	+		
2.5. 공동체적 가치					
이민의사	상	증가	-		
결사체참여율	하	감소	-		
이혼률	상	증가	-		
3. 사회적 포용성					
3.1. 사회적 통합성					젠더포용성의 증가와 계층간 포용성의 감소 ● 매우 낮은 수준이던 남녀간 통합은 증가경향 ● 경제적 계층간 통합은 감소
공적연금가입자와 수혜자	하	증가	+		
UNDP 남녀평등지수	중	증가	+		
UNDP 여성권한지수	하	증가	+		
3.2. 노동시장의 통합성					
청년실업률/구직단념	상	증가후 감소	-		
소득불평등	중	증가	-		
상급학교진학률	상	증가	+		
3.3. 사회적 관계의 연결성					
부모와의 동거	중	감소	-		
4. 사회적 역능성					
4.1. 사회문화적 역능성					구조적인 역능성의 급속한 감소와 일상적 역능성의 증가 ● 자신 능력계발과 일상적 문제해결의 지능 증가 ● 구조적 변화기제 약화와 정치적 무관심의 증가 ● 이상주의와 미래에 대한 낙관의 감소
신문구독자수	하	감소	-		
인터넷이용	상	증가	+		
평생교육수강자	하	증가	+		
개업변호사/공증사무소	하	증가	+		
4.2. 정치적 역능성					
선거투표율	상	감소	-		
고충민원처리	하	증가	+		
4.3. 경제적 역능성					
노조조직률	하	감소	-		
4.4. 사회심리적 역능성					
주관적 계층귀속감	중	약간 감소	0		
직업선택요인		감소	-		
자살자수의 변화	하	증가	-		